6·2 지방선거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인구 200만 전남 건설”

모든 농수축산물 친환경 유기농업 전환

■ 무엇을 할 것인가

박준영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3선 도전’에 성공하면 무엇보다 전남의 농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 재생에너지사업과 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 많은 정책이 있지만, 전남이 농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농업을 살려야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임기부터 추진해온 친환경 농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규모화·기업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존 논·밭농사에서 탈피, 전남의 모든 농수축산물을 친환경 유기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더욱이 각 시군에서 생산과 유통, 가공을 직접 할 수 있는 1개 시·군 유통회사 설립 추진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4개 시·군에 유통회사를 설립했고, 향후에는 10개 이상의 유통회사를 더 설립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박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고급 농수축산물 시장 독점과 함께 해외 수출 활로도 찾게 된다면 농가소득은 물론 전남 경제발전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광 리조트 등 숙박시설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동안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인프라는 구축했지만, 숙박시설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임기 동안 리조트 등 22개의 대형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경기침체와 맞물려 아직 구체적인 실현이 이뤄지지 않고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큰 아쉬움이다. 박 후보는 “앞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 리조트 건설 추진 등 숙박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5년간 ‘DJ 입’ 역할 도맡아

■ 무엇을 해 왔나

중앙일보 기자와 청와대 공보수석, 국정 홍보처장, 전남도지사 등 언론계와 관계, 정계를 넘나들며 한국 현대사와 함께 했다.

중앙일보 기자시절에는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과 관련, 신문제작 거부 투쟁 중 전두환 신 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되는 고초를 겪었다. 이로 인해 2001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7년 기자 복직 이후에는 뉴욕 특파원과 편집부국장까지 역임하는 등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언론사 퇴직 후 대학 강의를 준비할 무렵 민주정부를 이뤄낸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고, 이 때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다.

국내 언론비서관을 시작으로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며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입 역할을 도맡아오는 등 국정 최전선에 있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김대중 대통령과 동행했고, 남북 간 화해 합의문을 직접 발표하는 영광도 누렸다.

국민의 정부 이후인 2004년 4월에는 고 박태영 전남지사의 자살로 공석이 된 전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후보로 전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이후 2006년에 재선에 성공하며 고향 전남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전남의 운명을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년 동안 친환경농업, 신 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산업, 기업유치,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전남의 미래를 바꿀 기반을 만들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준영 신상 메모

출생	영암
본관	밀양
신체	키 175㎝, 몸무게 73㎏
학력	목포중·인창고·성균관대 정치학과·미 오하이오 대학원 신문학과(석사)·성균관대 대학원(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편집국 부국장· 김대중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 겸 대변인·중앙일보 해직기자로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선정·국정 홍보처장·제34대, 제35대 전남도지사
가족	부인 최수복씨와 3녀
재산	14억 4천만원
납세	최근 5년간 6천750만원
종교	불교
취미	바둑
좌우명	참배나무에 참배 열리고 돌배나무에 돌배 열린다
애창곡	백마강
쉴 때 가족들과 하는 일	대화, 윷놀이
아내에게 주로 하는 말	항상 고생한다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말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들도록 노력해라
좋아하는 연예인	송대관
좋아하는 음식	국밥
좋아하는 여행지	산
가장 아끼는 소장품	고 김대중 대통령이 써 주신 ‘경천애인’이라는 글
별명	영국 신사
저서 혹은 논문	미국 언론의 인권문제 보도 비교 연구 논문·평화의 길(6·15 남북정상회담 앞뒤 이야기, 전라도 사랑 영상노트(저서)
존경하는 인물	도산 안창호
주량/흡연	소주 1~2잔·하루 한 갑
홈페이지	http : //www.jypark.net
이메일 주소	jypark@ jypark.net

F1대회·여수박람회 성공적 개최
전남 발전 기틀 다지고 세계 홍보

친환경농업·해양관광 활성화 주력
4대강은 반대 영산강은 꼭 살려야

-5년9개월여간의 도지사 재임시절 많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추진 정책(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책과 아쉬웠던 정책은 무엇인가?

▲우선 가장 기억남는 것은 여수박람회 유치다.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혼연일체가 돼 유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는 해양발전 동력의 기반을 다지는 첫 출발이기도 하다. 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추진도 전남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다. 국가·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모터 스포츠산업 기반 구축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조기 활성화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쉬움도 많다. 전남은 남해안을 낀 해양 관광산업이 주요 자원인데 섬 지역 리조트 유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고 있지만, 숙박시설이 없어 관광만 하고 떠나는 게 아쉽다. 시·군 농수축산물 유통회사 설립도 지금까지 14개밖에 만들지 못했다.

-당선된 뒤 꼭 마무리하고 싶은 정책을 꼽는다면?

▲우선 올해 열릴 F1대회, 오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2013년 순천 정원박람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 전남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 관광정책 활성화를 유도해 낼 것이다.

전남의 미래는 농업과 관광에 달려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 정책과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친환경 농업은 이제 기반을 잡은 만큼 앞으로 국내 고급시장 독점과 수출 전략을 만들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나서게 된다. 그러면 전남 농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게 된다.

-인구 200만 전남을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인구 유입정책 있나.

▲지역 대학 졸업자 80%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면서 인구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취업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그동안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2천300개 기업을 유치해 8만2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기업유치가 인구 유입의 해법인 셈이다. 앞으로 당선된 뒤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곡성 생물방제센터 등 미래산업 중심의 7개 연구기관이 전남에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유관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갈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산업 관련 일자리들이 쏟아지게 된다. 이는 앞으로 전남의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전남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당론에 역주행했다는 지적이 있다. 아직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애초부터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찬성한 적 없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 4대 강 사업에 앞서 지난 2004년, 2006년 도지사 선거 때 내놓은 공약사업이다. 그래서 고대문화유적 정비사업·강변 자전거 도로 등은 4대 강 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시작된 사업이다.

다른 강 사정은 모른다. 하지만, 영산강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샛강 살리기에 나섰고, 이 지역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오염이 심각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50%나 정비를 마쳤다.

4대 강 사업은 다른 당이 추진하고 있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운하는 절대 반대한다. 영산강 사업은 4대 강 사업과는 다르고, 꼭 영산강을 살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에 건의했다.

-J프로젝트 추진이 중앙부처와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앞으로 J프로젝트는 어떻게 추진되나?

▲J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작은 단지를 생각하지만, 전남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 프로젝트다. 몇십 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국내외 투자자를 모으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 통과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현재 영암 삼호지구, 해남 구성지구 등이 정부 최종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